

2009 년 가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15

구약의 예표들과 상징들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6)

성경: 창 49:22, 25-26, 왕하 2:1-4, 7-14, 시 24:7-10

IX. 요셉은 성숙한 성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분배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A.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성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한다. 온전한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된 성도로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렸다—창 41:39-44, 히 6:1 상, 갈 6:8, 5:22.
- B. ‘꿈꾸는 이’(창 37:19)인 요셉은, 그분의 백성이 생명이 충만한 밀단이고 빛이 충만한 천체들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꿈을 꾸었다. 성숙한 생명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유죄 판결하지 않고 목양하고 귀히 여긴다(5-11 절).
- C. 성숙한 생명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 어디든지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다스리는 능력인 권위가 있다—39:2-5, 21-23.
- D. 비록 자기 자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의 꿈을 믿음을 갖고 해석했다(40:8). 결국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말한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해방되었고(41:9-13),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담대히 말한 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좌로 가게 되었다(14-46 절). 해방이나 권위는 다 그가 한 말을 통해 온 것이다.
- E.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 말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본 사람들이므로 그분의 경륜이라는 진리의 절대성에 따라 말해야 한다—행 26:16-19.
- F. 요셉의 삶의 기록은 그 영의 통치권에 대한 계시인데, 그 영의 통치권은 성숙한 성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이다. 그 영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 있는 삶은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은 것이다—롬 14:17-18, 비교 고후 3:17-18, 딤후 4:22, 계 4:1-3.
 - 1. 그는 그의 형제들에 대해 인간적인 느낌과 정서가 가득했지만 그 모든 느낌을 지닌 자신을 그 영의 통치권 아래 막았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온전케 하고 건축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함께 사는 집합적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냉철하고 지혜롭고 분별 있게 징계하며 다루었다—창 42:9, 24, 43:30-31, 45:1-2, 24.
 - 2. 요셉은 자신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두었고, 전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권익을 위해 처신했다.
 - 3. 하나님의 제한 아래서의 요셉의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성숙과 온전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에 대한 묘사이다—요 5:19, 30 하, 7:16, 18, 14:10, 마 8:9-10.

4.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룬 데서 우리는 그가 차분하고 냉철한 생활, 분별 있는 생활, —왕국 생활의 실행인,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을 한 것을 본다—대하 1:10, 사 30:15 상, 빌 1:9, 딤편전 5:1-2.
 5. 요셉의 감상, 느낌, 고려, 선호는 절대적으로 그 영의 통치권과 통제 아래 있었다—잠 16:32.
 6. 요셉의 목에 걸렸던 금사슬은 순복 가운데 표현된 순종에 주어진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요셉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이 반드시 사슬로 감겨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성령께 정복되고 굴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창 41:42, 아 1:10.
 7. (비록 그의 형들은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창 45:5, 7, 50:19-21, 비교 41:51-52)은 로마서 8:28-29에 있는 바울의 말의 실재이다.
- G. 요셉은 고난을 받으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생명 공급의 풍성을 얻었다. 그에게서 양식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네 종류의 대가—그들의 돈(편의), 그들의 생축(생활 수단), 그들의 땅(자원), 그들 자신—를 지불해야 했다—창 47:14-23, 계 3:18.
1. 우리가 분배자이신 주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분께 우리의 편의와 생활 수단과 자원을 드려야 한다. 그분께 더 드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 공급을 그분에게서 받을 것이다.
 2. 궁극적으로, 만족을 위한 양식과 재생산을 위한 씨를 포함한 최상의 몫을 주님에게서 받으려면(창 47:23),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께 넘겨드려야 한다(레 1:4).
- H. 열매 많은 가지인 요셉(창 49:22)은 그분의 가지들인 그분의 믿는 이들(요 15:1, 5)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 번으시기 위한 가지이신 그리스도(사 11:1-2)를 예표한다. 원천은 넘치는 열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시 36:9, 렘 2:13), 담을 넘어간 가지들은 그분의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을 넘어 그리스도를 확산하여 모든 환경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빌 1:20, 4:22, 몬 10).
- I. 요셉에 대한 우주적인 축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에 대한 복으로서 새로울 것이다—창 49:25-26, 신 33:13-16, 계 21:5.
1. 변화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숙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은 생명의 넘쳐 흐름이다. 요셉과 함께하는 야곱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빛남의 절정인 축복의 삶이었다—잠 4:18, 히 11:21, 창 47:7, 48:15-16.
 2.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시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은 다 낡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다 새롭다—고후 5:17.
 3.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4:16.
 4. 우리의 새로움의 축복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시게 하는 것이다.
 5. 요셉에게 주신 ‘우주적인’ 축복은 축복이 각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찬양은 타락에서 온 저주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다—엡 5:20.
- X. 엘리사는 축복의 신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왕하 5:9, 눅 4:27.
- A.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엘리사는 신약 시대를 대표한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가 바뀌려면 반드시 다음 네 곳을 통과해야 한다.
1.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들의 육체를 처리한 곳이었다—왕하 2:1, 수 5:2-9, 갈 5:24.

2. 벤엘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돌이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곳이다—왕하 2:2-3, 창 12:8, 요일 2:15-17.
 3.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패배시켜야 했던 성인 여리고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머리를 상징한다—왕하 2:4, 수 6:1-27, 계 12:11, 롬 16:20.
 4. 신약의 침례가 시작된 곳인 요단 강은 죽음을 상징한다—왕하 2:7-14, 마 3:5-6, 16, 롬 6:3-4, 갈 2:20.
- B. 이 네 곳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이상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왕하 2:8, 12, 마 16:24.
- C. 엘리사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표한다. 은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로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은혜는 은혜의 보좌로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왕으로서 다스리며, 은혜의 강은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한다—요 1:1, 14-17, 롬 5:17, 21, 히 4:16.
- D.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비교 눅 9:51-56.
1. 엘리사가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친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왕하 2:19-22, 요 2:3-11.
 2. 그는 한 병의 기름을 많은 그릇에 나오게 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냈다—왕하 4:1-7, 8-17, 42-44, 마 14:14-21, 15:32-39, 롬 4:17 하.
 3. 그는 죽은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왕하 4:18-37, 13:21, 히 11:35 상, 눅 7:11-17, 요 11:41-44, 롬 4:17 하.
 4. 그는 들외의 독을 가루로 없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 경고하신 것과 고운 밀가루이신 그분 자신으로 제자들을 치료하신 것에 해당한다—왕하 4:38-41, 마 16:6-12.
 5. 그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다. 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나병환자들을 치료하셨다—왕하 5:1-27, 눅 4:27, 마 11:5, 8:1-4, 막 14:3.
 6. 그는 물 속에 빠진 도끼를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떠오르게 했는데, 이것은 죽음의 물 속에 빠진 죄인의 잃어버린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심을 상징한다—왕하 6:1-7, 엡 2:1-6.
 7. 엘리사가 조롱하는 소년들을 저주한 것은 원칙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여덟 가지 화를 선포하신 것과 같다—왕하 2:23-25, 마 23:13-36.
 8. 엘리사가 그의 대적들을 눈 멀게 하여 그의 백성의 영토로 이끌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것은 신약 사역의 그림이다. 신약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눈 멀게’ 하셨다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신약 사역의 잔치를 지키는 데로 이끄시어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신다—왕하 6:8-23, 행 9:1-5, 롬 12:20-21, 고전 5:8, 시 24:7-10.